

지역 소식통

김제시, 마을세무사 간담회 개최

김제시는 재능기부로 등록한 마을세무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혜를 모았다.

간담회를 주관한 최기운 세정과장은 김제시에 등록된 4명의 마을세무사가 인근 시 재능기부 미등록 마을세무사를 김제시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국제 상담이주를 이루는 마을세무사의 지방세 관련 지식 습득과 원활한 지방세 상담을 위해 지방세 직무교육과정 지원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김제시 마을세무사는 상시상담과 매월 정례적으로 지역에 찾아가는 출장상담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정례상담은 김제 시내권인 오촌·신흥동을 제외한 17개 읍면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마을세무사 4명이 거주지 및 고향지역에서 재능기부로 무료 상담 활동하고 있다. 정례상담으로 마을번호사·마을세무사를 통합 운영하는 정기상담을 매월 넷째주 월요일(오후 3시~5시)에 실시하고 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농산물 가공창업과정 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 가공창업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과 가공 기술의 과학화·표준화가 정립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 대상은 자가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가 또는 농산물 가공 사업 아이디어 개발과 기술력 향상을 희망하는 농업인 창업자이다.

3월부터 5월까지 기초교육을 8회 실시한 이후 기초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8회의 심화과정 교육을 갖는다.

교육과정은 농산물 가공의 이해와 사업인허가 절차, 시설 설치 조건, 식품관련 법규, 시제품 개발 실습 등 농업인들이 체계적인 가공 기술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농업기술센터나 농민 상담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63.539-6271~3)으로 문의하거나 정읍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i.jongseup.go.kr)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승복 김제시장대행 제설현장방문

이승복 김제시장은 제설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조천을 함께 하며 도로 보수 등 제설관계를 점검했다.

9일 밤부터 눈이 내려 적설량이 2cm를 기록한 가운데 새벽 3시부터 시작된 제설작업 상황실 운영 및 고가도로, 지하차도 및 고갯길 등 중점 제설구간과 주요도로 373km에 대한 제설상황을 점검하고 제설작업 관계자들과 조천을 함께 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보유중인 덤프 4대에외에 15톤 덤프 트럭 2대를 임차하고 염수까지 2개소 신규설치, 효율적인 제설을 위한 '제설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법정도로 제설을 지원하기 위한 '읍면동 임차비 및 제설장비 지원' 등 제설여건을 개선하고 친환경 제설제 200KL, 염화칼슘 578톤 등을 확보하여 동절기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치매건강 참여자 모집

부안군 보건소는 2017년 치매건강 상시 통합프로그램 참여대상자를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뇌운동인지재활과 시니어 라인 댄스, 치매요가체조, 정춘노래교실 등 4개 분야에 50대 이상 총 150명이다. 치매건강 상시 통합프로그램은 오는 3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프로그램별 주 1회 36주 운영되며 신체 인지기능강화 훈련 건강프로그램으로 건강 100세, 행복한 노년 치매 안심 부안 만들기에 기여코자 진행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시정운영 로드맵 제시

해양수산 발전전략 용역·도시재생 전략수립·서부권스포츠관광 등에 역점

김제시 이승복 시장권대행은 올해 첫 개원한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개인 축하와 함께 지난해 성과와 2017년 시정운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승복 시장권대행은 먼저 지난해 한해 김제시가 새만금중심도시로 우뚝 성장할 수 있는 길에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시의회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사를 표했다.

이어 새만금 2호방조제 김제구간의 지적등록 완료로 실질적인 관할권을 확보하고 국내 유일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으로 국가 종자클러스터 구축기반을 마련했다며 지평선축제가 전국 최초로 5년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돼 김제시의 위상을 드높였음은 물론 지역현안인 김제육교 재가설을 위한 국비 확보로 수년간 끈질기게 노력한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한 해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올해는 2017년 시정방향인 "역동하는 김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새만금의 호기를 살려 새만금수목원 조성 등 새만금개발의 정책발굴과 반영에 힘쓰고, 하반기에 개최되는 대규모행사인 국제종자산업박람회와 전국농업기계박람회의 차질없는 추진, 지평선축제의 세계화 그리고 최대 현안인 김제육교 재가설을 위한 추가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은 해양수산 발전전략 용역, 도시재생 전략수립, 서부권스포츠관광 기본 계획,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김산 2단지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 등 김제미래를 설계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권대행은 "2017년 김제시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올 한해도 열심히 뛰고 늘 살피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은 없는지 시민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농협, 농업인 실익증진·조합원 복지증진마련

자산 3000여억 원 달성... 장학금 전달·김장 김치·밀반찬·경로당 백미 제공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이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이라는 목표로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큰 기틀을 마련했다.

부안농협은 제45기 정기총회 및 결산보고서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산 3,000여억 원을 달성, 경영성과도 우수하여 총당금 적립을 비롯한 당기순이익 24억 원, 3백만 원의 톤 백 무상 공급과 7억5천 원의 출자배당 4억2천3백만원, 사업준비금 8억6천만원, 이용교배당 8억8천2백만원 등 조합원에 대한 27.2%의 직·간접배당을 실시하는 이익잉여금 처분 안을 의결했다.

이승복 김제시장을 비롯하여 남궁두 상임이사, 고득수 상임감사 등 110명의 임직원들이 땀땀 뚝치워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높은 배당은 지난해 결산결과 24억 원의 당기순이익 발생했기에 가능. 3개 지점과 하나마트, 주유소, 영농자재센터, 미곡종합처리장, 육포장 및 무인헬기기를 운영, 조합원의 이용편익과 실익증진을 크게 기여 조합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안 농협은 또 조합원을 위한 2천3백만 원의 톤 백 무상 공급과 7억5천 원의 출자배당 4억2천3백만원, 사업준비금 8억6천만원, 이용교배당 8억8천2백만원 등 조합원에 대한 27.2%의 직·간접배당을 실시하는 이익잉여금 처분 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양성과 조합원들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1999년

부터 2016년까지 1,574명에 8억1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과 외롭게 생활하는 이웃을 위해 김장김치, 밀반찬 제공, 경로당 백미 제공 등은 지속적인 사업과 함께 상생하는 농협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김원철 조합장(사진)은 "지난 한 해는 유례없는 쌀값하락 등 농업계에 혹독한 시련들을 겪고 있는 여건 속에서도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조합경영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제공,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 해였다고 자부한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서부지방산림청관리소, 방제 업무 협약

정읍시와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체계적인 산림 병해충 공동 방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생기 시장과 배정환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김민영 정읍산림조합장과 산림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실에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민유림에 관계없이 산림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산림 병해충 발생 위치 등 DB정보 공유와 예찰·방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한 인력과 기술을 상호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등 돌발 산림 병해충 발생이 확산 추세에 있고, 특히 인접 시군인 임실군과 순창군, 김제시 등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정읍은 이들 재선충병 발생지로부터 인접해 있어 선제적인 예찰과 예방활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정읍지역 산림 관계 기관은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협조를 통해 예방과 방제 활동을 추진해 왔다.

두 기관은 첫 번째 사업으로 2천700만원을 투입해 2월까지 재선충 발생지와 가까운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내 소나무 임지(19ha) 7천본에 대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수간주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후 대상지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배들평야 농로 확포장 공사 민원 해결

정읍시의회 고경운 의원... 주민 여론 수렴·건의 등

정읍시의회 고경운 의원이 이평면 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배들평야 농로 확포장 공사 민원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농어촌공사로부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평면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고경운 의원은 "내가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민의 고충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비좁은 농로를 이용하여 불편을 겪었던 많은 농민들이 이제 한시름을 놓고 맘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며 앞으로도 농민의 심부름꾼이 되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평면민들은 수년전부터 이평면 심장부 곡창지대를 가로지르는 배들평야 중앙 농로 확포장 공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왔지만 매년 해결되지 못하고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에 지역구 고경운 의원은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정읍시에 적극 건의하고 농촌공사를 방문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수차례 노력한 결과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도록 공헌하였다. 이평면 배들평야 중앙 농로는

360ha에 이르는 비옥한 단풍미인 단지를 가로 지르는 주요 농로로 대형 농기계가 수시로 통행 할 뿐만 아니라, 단석보에서 전봉준 생가로 가는 길목으로 평상시 차량 통행이 매우 빈번한 농로임에도, 총 2.2km 구간 중 200m를 제외한 나머지 2km구간이 확포장되지 않아 농기계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던 곳이었다. 배들 평야 중앙 농로 확포장공사는 총2km로 사업비 2억4,000만원이 소요되며 2018년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연차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문광부 글로벌 관광상품 육성사업 선정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채석강·부안 상설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17 글로벌 관광상품 육성사업'에 부안군과 군산시 관광자원을 묶은 '장인과 함께 하는 내 장바구니, 내 식탁 차리기'가 선정되어 관광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인과 함께 하는 내 장바구니, 내 식탁 차리기'는 전통적인 맛(한옥, 한복)과 맛(음식)을 체험하는 전통문화 체험과 깨끗한 자연에서 자란 식 재료를 직접 내 손으로 골라 지역의 음식장인과 함께 만드는 전래음식체험 등을 중심으로 생태자연 속에서 자연의 중요성과 함께 힐링을 즐기는 지속가능한 관광상품이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부안 줄포만 갯벌생태공원(탐사트습지)과 부안누에타운, 채석강, 새만금방조제, 부안전통시장 등을 전국에 홍보에 관광객 1200만 명 유치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정부의 국제홍보채널(해외문화원, 홍보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에 집중적으로 홍보해 글로벌 부안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글

로컬 관광상품을 히트상품으로 육성해 국내는 물론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1200만 명 유치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 로컬 관광상품 육성사업은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유치를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국비 11억 원이 지원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생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전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러운 맛에 뛰어난 갈음함을 한껏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The ad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